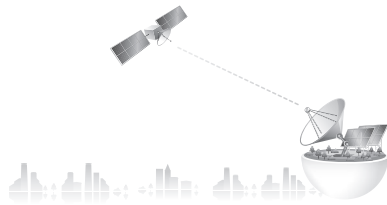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국장



제20대 국회에 거는 기대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등 다양한 의견 요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선인들에게 거는 축산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축산단체를 대변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진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계분야를 포함해 축산업 공통사항들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었다. 양계분야에서는 축산계열화법 개정, 권역별 GP센터 운영, 종계 수급조절 방안 등이 주요 골자에 포함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이 오히려 계열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권역별 GP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GP센터의 신축 및 확장에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됨을 강조했다. 종계 분야에 있어서는 종계장 허가시 기존의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계업 허가기준에 종축법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 확인서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축산 전반적인 공통사항으로는 축산식품안전 관련 농식품부 일원화, 농신보 보증 상향조정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등을 골자로 다양한 내용들이 요구되었다. 축산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의거 법령 및 지도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실제업무는 농식품부가 수행하고 있어 이원화된 체제하에 축산물의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계란에 있어서도 식약처가 단속위주의 규제일변도로 나가다 보니 파란 유통문제 등 다방면에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대책으로 한시적인 특례보증제를 실시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요구하였다. 과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적용(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08년),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특례보증('11))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처럼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폐업농가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이 심한 시기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하며 금리도 시중금리(1.5%)보다 높은 것

(2~2.5%)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다.

축산업 대기업참여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까지 존치되었던 대기업 축산업 참여조항(축산법 27조 : 모든 500두, 닭 5만수 이상)이 기업형 육성정책에 의해 사라지면서 대기업들의 축산업 참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양돈, 한우는 물론 계란산업까지 진출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제제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전달 될 것이다. 이를 충분히 받아들여 신뢰할 수 있는 국회, 현실적으로 축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닭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2년만에 정상화, 수출 확대 기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닭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수출이 재개(3.11)되면서 수출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AI 청정화 선언 이후 8일만에 취해진 조치로 과거 11개월만에 수출재개가 이루어졌던 2009년, 43일만에 수출재개가 이루어졌던 2011년과 비교해 볼때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그 동안 홍콩으로 2014년 5월 수출중단 전까지 꾸준히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닭고기는 4,923톤(2013년 기준), 계란은 3만5천개(2013년 기준)를 수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조기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AI예찰 자료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실무검역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콩수출 작업장은 총 40개소로 가금육 38개소(도축장 21, 가공장 17), 계란은 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계란을 수출하는 한국양계농협의 경우 홍콩정부측에서 실제수입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수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AI 재발방지는 물론 수출검역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닭고기 수출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따라 열처리 등 가축 전염병 원인체를 사멸시키는 조건으로 가공된 가열 제품(삼계탕 등)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AI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의 한류열풍에 따른 삼계탕 수출, 미국 삼계탕 수출에 힘입어 삼계탕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던 성계육 수출이 국제경쟁에서 밀려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성계육 처리가 원활치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I 청정화 이후 닭고기 수출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화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양계**